

정상 출퇴근에 미사·결혼식 참석 10일간 왕성한 활동

고속버스·지하철 이용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진료

밀접 접촉 딸 부부·마을주민·친척 아직 증상 없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달 27일 광주광천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상경, 지하철을 이용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들러 5시간을 머물다 같은 방법으로 광주까지 와 자가용으로 다음날 새벽 보성 자택으로 갔다.

A씨는 이 때 '수퍼 전파자'로 알려진 14번 환자와 접촉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일상 생활에 참여했다.

28일에는 직장에 정상 출근, 13명인 직원들과 어울렸고 직장을 찾는 며칠 주민들과도 대화하며 하루를 지냈다.

30일까지 이같은 생활을 하다 곡성군 모 식당(100명)에서 딸 부부와 저녁 식사를 했고 다음날에는 성당에서 신도 200명과 미사에 참석했다. 6월 1일부터 5일까지도 쪽죽장에 출근했으며 이 사이 5월 29일과 6월 1일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순천지청은 A씨 확정 판정 이후 직접 접촉한 검사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A씨 동선을 중심으로 사무실 등에 대한 방역을 벌이는 등 메르스 차단 관리에 나섰다.

지난 6일에는 여수시 모 호텔 웨딩홀에서 치러진 조카 결혼식에 참석, 가족·친지

들과 식사를 함께 한 뒤 친척집을 들렀다 귀가했다.

A씨는 이후 7일 오전 11시 30분께 미사 참석 상황에서 전남도 보건 당국으로부터 '메르스 관리대상자'임을 알게 됐고 자택 격리에 들어갔고 열이 나고 기침·가래 등이 나오자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 국가 지정격리병원으로 옮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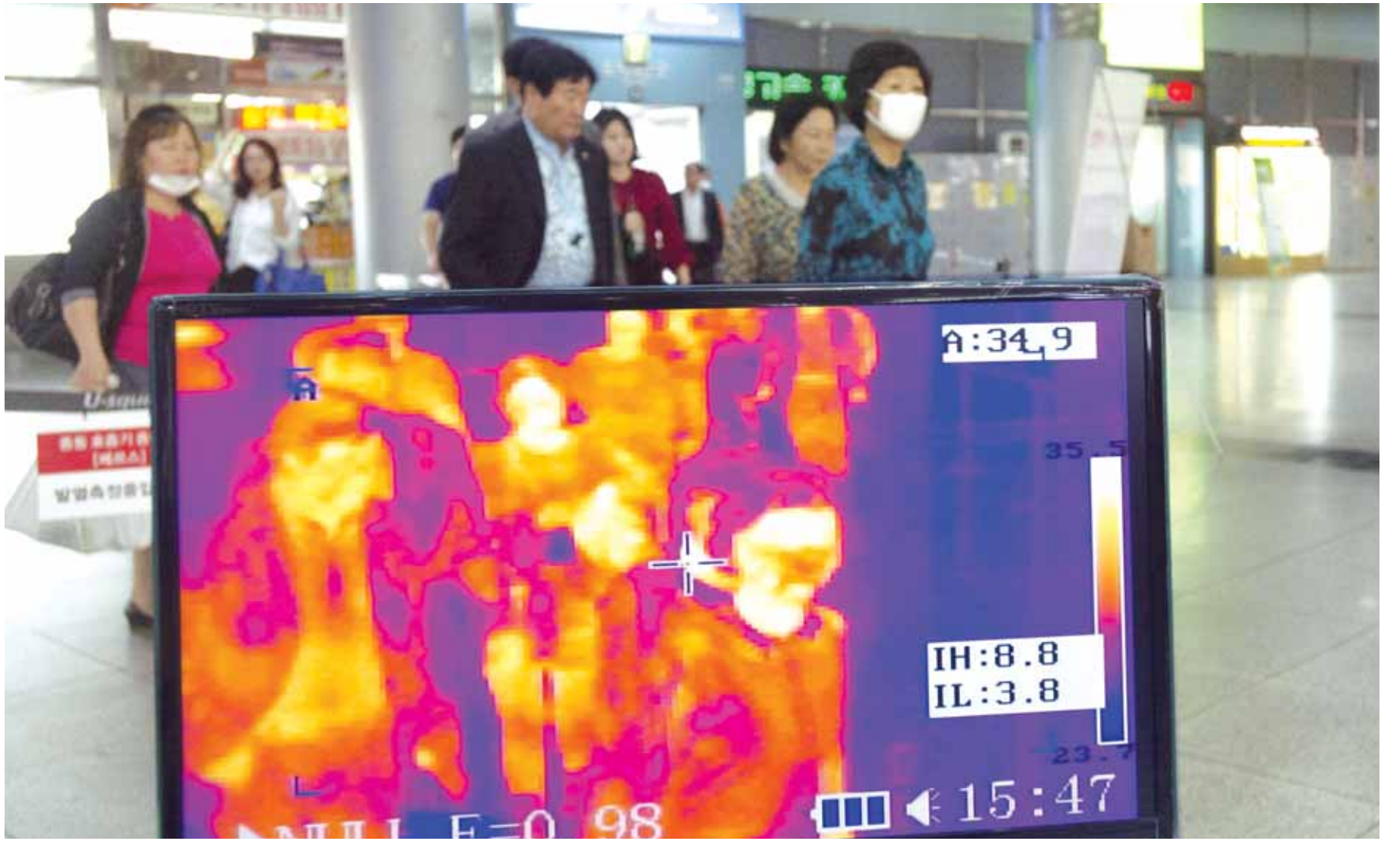
A씨는 이후 전남도 보건당국에 의해 7일 1차 가검물을 채취, 음성 판정을 받았고 8일 추가 검사에도 음성으로 나왔지만 10일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는 A씨의 양성 판정 이후 밀접 접촉자인 딸 부부와 마을 주민 30여 명, 결혼식 후 자리를 함께했던 친척 등에 대해 메르스 의심 증세를 확인했으나 아직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확인을 의뢰, 최종 확진 판정을 내렸다.

한편, 전남도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A씨의 행적을 토대로 파악된 75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증상을 확인하고 능동감시, 자가 격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휴대전화 위치추적,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추가 확인해 또 다른 접촉자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천동 터미널 메르스 발열감지기 설치

메르스 확진 환자가 전남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11일 방역당국이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를 잇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고속버스터미널에 승객들의 발열 상태를 확인할 수 발열감지기를 설치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메르스 3개월 지속팬 사회적 비용 20조원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3개월 가장 지속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20조 원 이상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가 한 달 이내인 6월 말까지 종결되면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4조425억원, 7월 말 끝나

면 9조3377억원에 달하고 3개월째인 8월 말까지 갈 경우 20조922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별 연평균 국내총생산은 각각 0.26%, 0.61%, 1.31%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메르스 사태가 8월까지 이어지면 격리자 수가 2만여명이 넘고, 감염자는 648명에 달해 노동 손실액이 6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메르스 사태는 소비와 투자,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6월말 종결되면 투자는 0.7%, 소비는 0.25%, 수출은 0.39%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7월 말까지 가면 투자는 1.61%, 소비는 0.57%, 수출은 0.91% 감소하며, 8월말까지 지속되면 투자와 소비는 3.46%와 1.23%, 수출은 1.98%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메르스 불안 잡아라"...장관들 현장 속으로

국무위원들이 메르스로 인한 국민 불안을 차단하고 위축 조짐을 보이는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일제히 '메르스 현장' 속으로 뛰어든다.

최경환 총리대행이 선봉에 섰다. 최 총리대행은 11일 이날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의

현장방문을 지시한데 이어 이날 하루 동안 평택성모병원·재래시장·천안 보건소를 잇따라 찾았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대학로 일대 공연장을 둘러보고 공연관계자 등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확산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의식도 적극적으로 해

소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말인 13일에는 야구장을 찾아 관람객 및 현장 관계자들과 만난다.

김종 제2차관은 주말 명동 지역을 돌며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13일 충남 금산에 있는 축산관광농장(우이담)을 방문해 메르스 여파로 농촌관광 수요가 얼마나 줄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

1차 음성, 2차 양성...검사결과 오락가락 왜?

검체 채취·바이러스 활동량·조사 방식 따라 결과 달라
보성 60대 확진자, 접촉자 격리조치 늦어지는 등 혼선

전남에서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환자에 대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1차와 2차 검사 결과가 서로 달라 궁금증을 낳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3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보건당국의 대처도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던 보성에 사는 A(64)씨에 대해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0일 확진환자로 판정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폐렴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째 확진자(35·5월 30일 확진)와 접촉했으며 지난 7일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여 국가 지정격리병원에 입원조치됐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10일 두차례 확인검사를 거친 뒤 2차 가검물 검사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확인 의뢰해 양성 환자로 확진됐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7일과 8일 실시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1, 2차 검사 결과가 다른 것은 가래 검체 채취 여부와 바이러스 활동량, 조사 방식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메르스 확산을 위해 가장 정확한 가검물은 가래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하(아랫)기도에서 활동하는 종류여서 인후도말 검체로는 판정이 힘들기 때문이다. A씨에 대한 1차 첫 검사 당시에는 가래를 채취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대신 긴 면봉으로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했으며 그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

되지 않았다.

2차 검사에는 처음부터 가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바이러스 활동량도 변수다. 1차 검사 당시 바이러스 양이 적거나 활동이 왕성하지 못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 후 활동량이 늘어나면 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

또 1차 검사는 PCR(중합효소 연쇄반응)으로 유전자 하나만 검출하지만 2차 검사에서는 두 개의 유전자를 검출하는 것으로, 신뢰성이 더 높다.

전남도는 일단 1차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48시간 내에 재검사하고, 잠복기인 14일은 격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보성군은 전남도와 협의 없이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한 뒤 A씨 밀접 접촉자 45명에 대해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혼선을 빚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보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영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